



## 명절특수로 9월 중순까지 난가 안정세 전망

### ◆ 동향

폭염과 잦은 강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과채류가격이 전년대비 30%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가정에서 반찬으로 활용도가 높은 계란을 찾는 주부들이 늘면서 산지시세는 8월 초순부터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오랜 불황을 지나고 8월들어 3차례 가격상승하면서 수도권 기준 특란 136원까지 회복하였다. 여름철 더위로 인한 난중저하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난가가 불안정한 가운데 추석생산을 겨냥한 환우가담계군이 증가하면서 생산공백이 생긴 것 또한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표면적인 시세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반면, 오랜 불황동안 생긴 DC폭으로 인해 산지농가의 실제 수취가는 어렵게 원가선을 넘어선 수준이다.

###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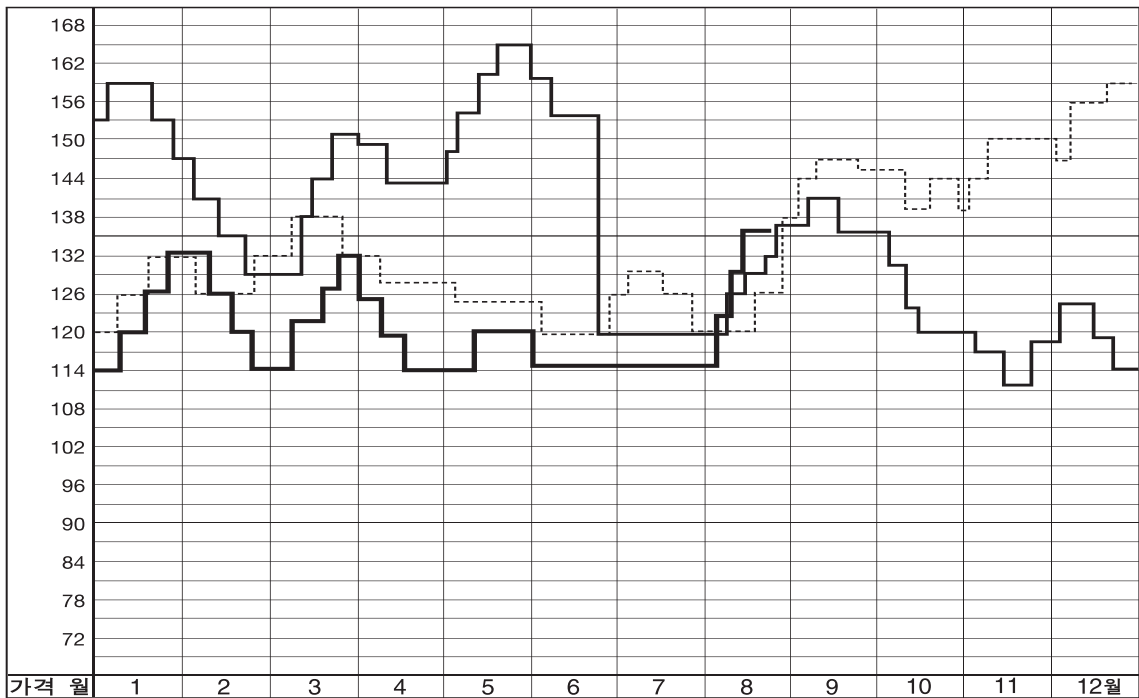
7월 산란중계입식수는 33천수로 전년대비 1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월까지 누계량은 280,292수로 전년대비 7.8%감소하였다. 같은달 산란병아리 입식수는 2,465천수로 전년대비 23.0%가 증가하였다. 7월 중계DB 자료에 따르면 산란중계사육수는 529천수로 전년대비 21.9%감소하였고, 이중 종란생산계군은 316천수로 전년대비 30.1%감소해 산란병아리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된 수준을 유지하겠다.

6월 육추사로 생산량은 29,195톤으로 전년대비 8.9%증가하였고, 산란사료는 154,750톤으로 전년대비 0.9%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사료의 경우는 강제환우에 가담하는 계군수가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같은 달 산란노계도태수는 2,740천수로 전년대비 13.6%증가하였고, 특히 올해 상반기 누계량은 전년대비 15.3%증가해 난가가 약세권을 형성하면서 노계도태도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전망

8월말부터 개학에 따른 호재와 9월 추석명절(9/21~23)로 난가는 안정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잦은 강우로 인해 작황부진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비교적 저렴하고 영양가 있는 계란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난가는 한두차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전년수준인 140원(수도권기준 특란)대 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석명절 특수를 노리고 환우에 가담한 계군이 많아 난가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2/4분기 가축통계에 따르면 총 산란계사육수는 61,586천수 중 6개월이상의 성계수는 꾸준한 노계도태 결과 46,514천수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3개월미만의 육성계군은 8,457천수로 전년대비 8.4%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계군의 사육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8-- 2009- 2010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3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4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5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6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7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0	33,000	2,465				1,150
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9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10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11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계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